

커뮤니티 개념과 협동조합 제7원칙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신창섭¹⁾

국문요약

커뮤니티는 일반적으로 국지적인 장소를 매개로 구성원 간 일정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회 집단을 의미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커뮤니티는 연대, 돌봄, 평등의 관계가 존재하는 곳으로 표상되고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질성에 기반한 커뮤니티는 한편으로 훈육과 기율의 권력 관계가 끊임없이 작동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 글은 국지적 장소에 기반한 주민들의 공동체라는 전통적 커뮤니티 개념을 벗어나 주체 형성을 놓고 다양한 힘들이 경쟁하는 장소로서 커뮤니티를 바라본다. 이러한 시각에서 개발의 대상이 되는 커뮤니티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커뮤니티 개발은 어떻게 개념 지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커뮤니티 및 커뮤니티 개발의 개념이 협동조합 제7원칙 커뮤니티 관여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본다.

주요어 : 커뮤니티를 통한 통치, 협동조합 통치, 장소, 권력, 제7원칙

1)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104onlyone@daum.net)

An Exploratory Study on Concept of Community and Cooperative 7th Principle

Shin, Changsub²⁾

Abstract

A community traditionally means a social group whose members share common identity based on local place. In this context, community is often represented as a place where relationships of solidarity, care, and equality exist. However, the community based on homogeneity is also the place where power relation of discipline is constantly working. This study's perspective on community seeks to deviate from the traditional concept. This study regards community as a place where various powers compete with each other for subjectification.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concept of community development in this context. Furthermore, this study aimed to find out implications the new concept of community and community development can give to the 7th principle community engagement of cooperatives.

Key words : community rule, cooperative rule, place, power, 7th principle

2) Ph. D. student in management at SungKongHoe University Graduate School , Seoul, Korea (104onlyone@daum.net)

1. 서론

커뮤니티의 우리말 번역은 맥락에 따라, 지역사회, 마을*, 공동체, 동호회 등으로 번역한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브랜드 커뮤니티 등 영어를 그대로 적는 경우도 많다. 최선희(2019; 34)에 의하면 커뮤니티community의 어원은 라틴어 communitas와 communis에서 유래하였다. communitas는 community 이외 fellowship의 의미를 지니는데, ‘동료, 협력, 협회’를 의미한다. communis는 com과 moenia/minus의 합성어로서 com은 together로서 ‘함께’를 의미하고. moenia는 도시 요새의 담을, minus는 ‘사무실, 기능, 고용, 의무’ 등을 의미한다. 이를 말로 풀어 써보면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기능적 공동체, 즉 지역 공동체를 의미한다(최선희, 2019; 34).

현대 사회에서 도시화와 산업화의 발달은 이러한 지역 기반 커뮤니티를 해체하는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커뮤니티 담론은 과거의 지역 기반 커뮤니티의 모습을 이상화하는 노스텔지어nostalgia 경향을 띠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낭만적 커뮤니티 담론은 커뮤니티를 자명한 선good - 좋은 삶, 돌봄, 평등 등을 내포하는 이상으로 여기고, 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 문제의 처방전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커뮤니티가 기율discipline과 배제를 통해 젠더, 인종, 사회적 위계를 정당화하고 지배를 정교화하는 데 기여하는 장치라는 해석도 있다(Joseph, 2002: 7-36; 구현주, 2022; 65-66). 이는 커뮤니티를 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 문제의 처방전이 아닌 자본주의 체제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셈이다.

이 글에서는 커뮤니티를 장소에 기반한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보는 관점을 지양하고자 하기에 지역사회, 공동체 등의 번역어로 쓰지 않고 그대로 커뮤니티로 적기로 한다.

이 글의 목적은 주체 형성의 관점에서, 주체 형성을 놓고 다양한 힘들이 경쟁하는 장소로서 커뮤니티를 기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커뮤니티는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회집단이라기보다 권력 관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활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이 협동조합 제7원칙 커뮤니티 관여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 서울특별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의 영문 번역은 Seoul Community Support Centre이다.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eng/index.html> 최종검색일: 2022.11.22.

2. 장소와 커뮤니티

사회는 사람들의 행위,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조직의 유형으로 구성된다(Turner, 2019; 23). Tönnies는 커뮤니티를 사회조직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여 1887년 Gemeinschaft und Gesellschaft를 저술하였다. 이 저술의 영어 번역은 1957년 Charles P. Loomis에 의해 이루어져 Community and Society란 제목으로 출간되었고,* 우리말로 1963년 변시민과 김대환의 공역으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란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Tönnies는 Gemeinschaft를 역사적으로 자연스럽게 생성된 사회적 형성물로, Gesellschaft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형성물로 보았다(Tönnies, 2017; 17). Gemeinschaft는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질 의지natural will에서 비롯되었으며,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형제간의 관계, 전통적 촌락공동체에서 이웃간의 관계에 그 원형이 있다. 반면 Gesellschaft는 선택 의지에 의한 것으로 개인들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하였고 목적이 달성되거나 없어지면, 그 집합체도 없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Tönnies는 일련의 상호적이면서 대비적인 개념들을 통해 이들을 구별했는데 아래 표와 같다.

〈표 1〉 Tönnies의 상호적이면서 대비적인 개념을 통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의 비교

공동사회Gemeinschaft	이익사회Gesellschaft
본질 의지	선택 의지
자아	인격
소유	재산
토지와 농토	화폐
가족법	채권법

※ 자료: Tönnies, 1887, 박노환·황기우 옮김, 2017,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 순수사회학의 기본개념, 268.

한편 구현주(2022; 58)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라는 용어 대신 Gemeinschaft를 공동체로, Gesellschaft를 계약에 의해 형성된 결사체로 이름 붙였다. 구현주(2022; 45)는

* <https://psycnet.apa.org/record/1958-04053-000> 최종검색일: 2022.11.29.

**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최종검색일: 2022.11.29.

Hillery(1955)의 연구를 인용하여 당시까지 다수의 공동체에 관한 정의 중 공통된 요소가 지역area,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결속감common tie 등 3가지라고 하면서 이를 고전적 공동체를 이루는 3가지 조건으로 보았다. 이 조건들은 Tönnies의 개념에도 존재하는데, Tönnies(2017: 46)는 출생과 함께 소속되는 혈연으로 이루어진 커뮤니티는 자연스럽게 공동거주 속에서 지역 공동체로 발전하고, 공동의 감정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정신 공동체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Tönnies의 공동체, 즉 커뮤니티 개념은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거리의 제약을 뛰어넘어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였고, 사람들은 일자리와 꿈을 찾아 출생지가 아닌 새로운 곳에 이주하고, 주거지의 변경도 잦아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삶의 양식의 변화는 이미 Tönnies의 시대에도 진행되고 있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Tönnies도 농촌지역의 전통적 촌락공동체와 다른 양상으로 발생하는 도시지역의 사회 조직 양식을 Gseslschaft로 개념화한 것이다.

Wellman(1979: 1204)은 현대 사회 속에서 커뮤니티가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 3가지의 입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는 커뮤니티는 소멸하였다고 보는 입장이다.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민족국가의 등장에 따른 관료화로 공동의 연대는 약화되었고, 사회 관계는 비인격화, 일시적, 분절화되어 커뮤니티는 약화되고 이익사회만 번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커뮤니티는 존속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Tönnies도 이 입장이었는데, 잦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친밀함의 연대는 산업화와 관료화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지역이나 직장을 기반으로 친밀함과 공동의 욕망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연대의 사례를 소외된 빈곤층, 이주민 등 소수자 네트워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셋째는 커뮤니티 개념을 새롭게 바꾸자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국지적 장소를 넘어서는 사회 관계망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리고 커뮤니티 개념 변화가 필요한 사회 변화의 상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거주지와 직장, 친족 집단 간의 분리로 인해 약한 연대 의식을 지닌 다양한 사회 네트워크가 출현한 것이다. 둘째, 현대 도시에서 거주지의 잦은 변경은 과거 농촌처럼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 속박되어 생산 활동과 일상 생활을 영위하며 상호작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셋째, 교통과 통신 비용이 감소하였고 이는 집중되지 않고 넓은 지역에 분산된 연결망을 가능하게 만든 요인이다. 넷째, 넓은 범위에서의 상호작용은 지리적 경계를 넓어지게 만들고 다양한 집단과의

사회 네트워크 연결을 촉진시킨다. 다섯째, 이러한 공간적으로 분산되고, 이질적인 사회 네트워크의 증가는 친밀성 중심의 네트워크를 약화시킨다.

커뮤니티 개념의 재정립을 요청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대안적 개념을 제시하는데, 공히 고전적 커뮤니티 개념을 이루는 3가지 조건에서 지역, 즉 장소place를 제거한다. 장소 없이도 커뮤니티는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Massey(1991; 24)는 장소에 대해 논하면서 전통적으로 장소는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곳으로 여겨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대에서 커뮤니티와 장소가 같은 경계를 가지는 경우는 드물며, 커뮤니티와 장소가 같은 경계를 가지는 경우는 연대와 정체성 공유의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족주의나 적대 관계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있다(Massey, 1991; 24).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행정의 입장에서 커뮤니티를 개발의 대상으로 인식할 때도 그러하다. 커뮤니티와 장소는 같은 경계를 가지며, 그 경계는 행정상의 경계를 따른다.

Massey(1991)는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시기 발생하였던 장소에 얽힌 사람들의 감각 - 장소성sense of place이 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마을이라는 이미지에서 떠올리듯 장소는 하나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정체성은 장소 내부에 기원과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장소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를 가진다는 것이 기존의 장소성이다(Massey, 1991; 26).

그러나 서울의 성수동이라고 했을 때 그곳에 거주하는 남성과 여성,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이 같은 장소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같은 성수동이라고 하더라도 최신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여성과 그 옆 오래된 주택가 골목에 거주하는 여성의 장소에 대한 기억과 느낌은 같지 않다. 이는 지방 농촌의 어느 마을이라고 하더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원주민과 귀농인, 이주 노동자들은 다른 위치를 점하고 있고 이들이 느끼는 장소성은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Massey(1991; 28)는 장소를 영역이 아닌 특정한 위치들이 만나고 이어지는 선. 그 선들의 교차점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선들이 이어지고 만나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프로세스라고 보는 것이다(Massey, 1991; 28).

Gibson-Graham(2002)은 장소를 지리적·공간적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Gibson-Graham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이분법을 비판한다. 글로벌은 힘이 세고 자본주의적이며, 로컬은 약하고 친노동적이라는 대중의 이미지를 비판하면서, 글로벌과 로컬은 동일한 것이라고 말한다(Gibson-Graham, 2002; 32). 지구의 특정 부분을 감지하는 프로세스로서 글로벌과 로컬을 생각해보면, 사실 글로벌은 발견하기 힘들다. 어떠한 글로벌이라도 자세히 보고자 접근하면 하나의 공장, 증권거래소, 대형마트 등 어떤 로컬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글로벌이라기보다 지구의 여러 곳에 존재하는 멀티 로컬multi-local일 뿐이다(Gibson- Graham, 2002; 32). Gibson-Graham(2002; 32)은 여기서 Massey의 프로세스로서 장소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미 특정 장소인 로컬 내부에 글로벌 프로세스가 내재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정 위치들을 연결하는 선은 공간과 경계를 넘어서 다수의 장소multi-place를 이어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장소, 로컬이 주는 독특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Massey(1991; 28)는 장소의 독특성은 장소 내부에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지나가는 사회 관계들의 질과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홍대라는 명칭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는 인디라는 네트워크가 우연히 그 위치와 교차하면서 지역의 이미지로 자리매김한 것이고 성수동 역시 그러하다. 장소의 독특함이란 사회 네트워크가 공간화된 특정 순간인 것이다(Massey, 1991; 28; Gibson-Graham, 2002; 32).

커뮤니티 개념은 경계를 지닌 영역으로서의 장소 개념과는 분리되지만, 지리적 영역이 아닌 연결의 선과 프로세스로 새롭게 개념화된 장소는 다시 커뮤니티와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논의하겠다.

3. 개발의 대상으로서 커뮤니티

Joseph(2002)은 좋은 커뮤니티 대 나쁜 자본주의라는 대립 구도는 커뮤니티에 대한 낭만주의적 담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와 커뮤니티는 대척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동맹 관계로서 젠더, 인종, 사회적 위계를 정당화하면서 지배가 유지되고 정교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Joseph, 2002; 7-36; 구현주, 2022; 65-66).

Joseph(2002; 1)은 그럼에도 다양한 사회운동 조직들은 커뮤니티를 영적 교감, 연대와 협력, 평등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이상향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커뮤니티는 하나의 정체성을 일반화universalizing 함으로써 통합unity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Joseph, 2002; 2). 이는 전통 사회의 촌락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촌락은 마을의 촌장을 중심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함께 처리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단합을 도모한다.

Foucault(1994)에 따르면 권력이란 누군가 소유할 수 있는 사물이 아니라 일종의 위치

에너지이다. 주체들에게 내재한 고유한 힘들의 관계가 권력이기 때문이다. 힘은 도처에 편재하기 때문에 권력도 그러하다. 권력이 도처에 편재한다는 것은 권력은 지배계급뿐만 아니라 피지배계급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oucault가 근대 사회의 특징으로 꼽는 기율discipline은 그러한 힘 관계의 하나로서 온갖 종류의 장치와 제도를 관통하여 그것들을 연결하고 확산·집중시키고 새로운 방식으로 기능하게 하는 권력의 기술을 말한다(Deleuze, 1995; 52). 기율은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을 구분함으로써, 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 합법적인 것과 비합법적인 것을 구분함으로써 개인이 행동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규정한다.

한편 힘은 억압의 도구도 되겠지만 본성상 생산적이다. 생산적이라는 의미는 정해진 틀을 이탈하는 순간 힘이 작용한 것이며, 자신이 스스로 새로운 윤리의 주체가 되는 순간이고, 스스로 위법적인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규정한다는 것이다(김효영, 2019; 75). 이탈의 순간 기존 위법행위의 규정들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탈의 주체가 새로운 위법행위의 규정을 생산하기 때문에 스스로 윤리의 주체가 된다. 이러한 분자적 이탈은 다른 이들이 이를 모방할 충분한 강도를 지니지 못한다면 반복되지 못하고 일회적으로 끝난다. 그러나 관습이 바뀌고 법률의 한 조항의 문구가 수정되거나 추가되는 것은 이러한 힘들의 강도와 누적적 효과 때문이다(유진현, 2012; 219).

커뮤니티 안에도 역시 권력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커뮤니티는 정의되는 순간 ‘우리’와 ‘그들’이라는 포함과 배제의 선을 긋고, 고정된 실체로 작동한다. 이것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사례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사회 개발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경우이다.

Li(2010; 101)는 세계은행이 1980-1990년대 인도네시아에서 펼쳤던 커뮤니티 개발 community development 사업을 연구하면서, 커뮤니티는 도덕의 공간으로 표상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커뮤니티는 좋은 삶, 지속 가능, 신뢰, 민주주의의 표상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데, 커뮤니티가 취약해졌기 때문에 혹은 곧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개발의 전문가들이 개입하게 된다. Li(2010; 101-103)는 이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했는데, 전문가들은 이전의 건강했던 커뮤니티를 회복restore하기 위해 자신들이 개입한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역할을 지시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닌 촉진하고, 권한을 위임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전문가들은 마켓 리서치와 유사한 기법을 써서 커뮤니티의 속성을 드러내고, 참여 농촌 평가Participatory Rural Appraisal(이하 PRA)와 같은 기법으로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체로 역할하도록 만든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역의 지리, 역사, 주거환경 등을 조사하고, 특별히 고안된 지도, 다이어그램, 표와 모형을 사용하여 성과 지표를 도출한다. 그리고 좀 더 효

올적이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소모임 조직 방식을 동원한다. 소모임은 갈등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용이 있었다. 이전에 커뮤니티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소모임은 가시화되었고, 적절한 요소와 형식이 갖추어져 성능이 개량되었다. 그 이후 소모임은 자격 요건이 생겨 등록되고, 수치로 파악되었으며, 비용 지원이 되고, 다른 곳에도 대량으로 복제되었다. 또한 소모임은 3단계로 등급화되었는데, 단계에 따라 커뮤니티 자신의 역량과 정부나 민간 기구의 지원을 결합하는 척도가 되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NGO, 사회운동 조직, 기부자들과 커뮤니티의 네트워크를 세밀하게 조사하여, 효과성, 소통, 위계, 긴장과 같은 개념으로 분석하였고,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책임성 증가 등을 향상시킬 방법을 궁리하여 네트워크 형성 기법 역시 개발하였다.

Li(2010; 99)에 의하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커뮤니티에서 올바른 사회 관계를 확립한다는 명분 아래 진행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의 구별은 전문가들의 조사와 분석 결과로 산출되었다. 전문가들은 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체계적 방법으로 솔루션과 연결하는데, 체계적 방법의 핵심은 커뮤니티라는 대상을 계산 가능하고 조작 가능한 기술적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Li(2010; 99)는 이를 ‘사회 기술화 시키기rendeing social technical’라고 표현했다.

Rose(1999; 172)는 커뮤니티를 가치와 의미라는 이중의 관계 맺기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감정적 관계emotional relations의 공간으로 보았다. 이 감정과 도덕의 공간에서 개인 윤리와 집단 충성심을 키우고, 자기 관리self-management를 장려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Rose(1999; 176)는 커뮤니티를 통한 통치goverment through community라고 불렀다.

여기서 통치란 Foucault의 맥락에서 사용한 것으로 승인받은 가치와 의미의 경로를 따라 행동하게끔 하는 힘 관계를 말한다. 가치와 의미의 이중의 관계 맺기에서 가치는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고, 의미는 이성적인 것 혹은 합당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준다. 그리고 문제 인식과 솔루션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사회 기술을 통해 올바른 것과 합당한 것이 정해진다.

커뮤니티를 통한 통치의 특성은 개인들에게 자율화autonomization와 책임화responsibilization를 장려한다는 것이다(Rose, 1999; 174). 이것은 커뮤니티의 기술에 기반한 도덕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에 의해 주체들이 파생되는 결과이다. 커뮤니티의 권력은 윤리와 이성의 시선으로 개인들에게 내면화되기 때문이다.

Li(2010)는 신자유주의 배경을 가진 세계은행의 전문가들이 커뮤니티 개발을 통해 신자

유주의 논리를 커뮤니티에 내재화시키는 과정을 관찰했다. 그러나 Rose(1999)는 커뮤니티를 지리적 공간이 아닌 감정적 관계의 공간으로 강조한 세력은 1970년대 영국 사회복지 개혁론자들과 시민운동 진영이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커뮤니티를 시민들을 위한 제도와 서비스의 네트워크로 표상하였다(Rose, 1999; 172). 1990년대 후반에도 영국은 블레어 정부의 커뮤니티 뉴딜(New Deal for Communities)을 통해 커뮤니티 주도의 지역 재생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커뮤니티를 통한 통치란 특정 정치 이념이나 사회집단의 전유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기 진행되었던 새마을 운동과 2010년대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 재임 시기 진행되었던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다. 마을, 즉 커뮤니티를 중심에 두고 진행되었던 이 두 사업은 차이점도 있지만 유사한 점도 지니고 있다.

유사한 점을 먼저 살펴보자면 첫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 사업이다. 여기서 커뮤니티는 조작 가능한 대상이 되는 것이고, 도구적·합리적 이성이 작용하는 장이 되고, 효율성을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된다.

둘째, 새마을 운동과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모두 관에서 주도한 사업으로 그 시작 시점이 명확하다. 정우열 & 남홍범(2013; 272)에 의하면 새마을 운동은 1970년 4월 22일 전국 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고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뜻있는 젊은 이들이 모여 일을 구상하고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부락이 총동원되어 추진하면서 힘이 모자라는 것을 정부에 요청하면 이를 도와주겠다. 이러한 운동을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나가야 하는데 그 운동을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라고 한데서 시작하였다. 구현주(2022; 25)에 의하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2011년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이후 2012년 8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발간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셋째, 새마을 운동과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모두 Li(2010)가 말했던 사회 기술이 적용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박주형(2013; 18-28)은 두 운동의 유사점에 주목하며, 두 운동의 사회기술을 비교하고 있다. 새마을 운동은 전국 3만 4,665개 촌락을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 등 3단계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지원체계를 달리 적용하였고, 운동의 비전에 따라 새마을 운동의 발전을 기반조성단계, 생산기반시설 확충단계, 소득기반 확충단계로 구분하여 새마을 운동의 전국화와 전국 촌락의 자립마을화를 계획했다(성공회대학교, 2011; 박주형, 2013; 20).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경우 마을을 발전 정도에 따라 씨앗마을, 새싹마을, 희망마

을 등 3단계로 분류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고, 역시 마을공동체 준비기, 도약기, 발전기, 성숙기 등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해 추진되었다(박주형, 2013; 20-23).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경우 관에서 계획하였지만,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중요시하였기에 Li(2010)의 연구에서 발견되는 비슷한 장치들을 더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을 만들기 워크숍을 통해 주민들이 참여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고,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사회적 기업 멘토, 청년 활동가 등이 이들을 지원하여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social business model canvas(이하 SBMC)와 같은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컨설팅하여 마을 브랜딩과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전문가들은 커뮤니티의 자산을 목록화하고 맵핑한다(이승철, 2020; 114-129).

넷째, 두 사업 모두 관에서 시작하였지만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하였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장치는 주민 중에서 리더로 역할을 할 사람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것이었다.

한도현(2010; 276)에 따르면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중앙의 새마을지도자연수원과 도 단위, 군 단위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1970년대 10년간 전국적으로 60여 만 명이 각급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이들 새마을 운동 지도자들은 수동적 학습자가 아닌 스스로 변화를 체험하고 이웃 주민들에게 전하는 전도사로 역할 하였다(한도현, 2010; 275).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서도 워크숍과 소규모 그룹활동, 멘토, 컨설팅을 통해 주민들을 마을기업가로 변모시켰다(이승철, 2020). 이 과정에서 기업가라는 정체성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자발적인 열망이 부족해서가 아닌 자발성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발성을 일으키는 힘은 ‘공동체 회복’이라는 구호에 개인들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정열적인 집단 감정을 일깨우고 그 감정에 호소하는 힘이 존재했기 때문이다(Simmel, 2013; 595).

한편, 새마을 운동과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 사회세력의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커뮤니티 개발과 연결된 거시적 체계가 서로 다르다. Bhattacharyya(2004; 24)는 커뮤니티의 문제는 사실 거시적인 사회 문제가 커뮤니티 수준에서 표현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를 뒤집어 본다면 커뮤니티의 개발 역시 거시적인 사회 개발 계획이 커뮤니티 수준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쪽은 토건국가 건설과 관련이 있고, 다른 한쪽은 사회혁신, 사회적경제에 기반한 경제 발전을 꾀하였다.

둘째, 새마을 운동은 소위 관과 전문가들이 계획하고 추진하였다면, 마을 공동체 만들

기 사업은 주민들이 주도하고, 관은 지원하는 위치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주체성을 좀 더 존중하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사회적경제, 협동조합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의 정체성과 역할을 다르게 사고하였다. 새마을 운동에서 기업은 경제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며, 커뮤니티와 관련이 없었다. 새마을 운동은 마을 환경을 가꾸는 것, 토지와 용수, 도로를 정비해서 농업 생산을 높이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다.

반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스스로 혁신적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도록 고무되었다. 커뮤니티는 경제와 분리된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커뮤니티와 기업 활동은 통합되었고, 기업의 조직 형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주로 다루어졌다.

이렇듯 커뮤니티 개발을 추진하는 입장과 세력은 다를 수 있지만, 이들은 커뮤니티를 통한 통치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속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추진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천을 통치라고 의식하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던 동일하다.

첫 번째, 커뮤니티의 회복을 명분으로 세운다는 것이다. 여기서 회복이란 과거로 복귀하는 의미보다는 커뮤니티 원래의 가치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회복이다.

두 번째, 낭만적 커뮤니티 담론에 의지하는 만큼 장소와 결부된 고전적 커뮤니티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장소의 경계는 행정 기술 적용의 필요에 따라 행정의 경계와 일치하게 된다. 커뮤니티 개발은 필수적으로 막대한 예산과 자금이 투입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내러티브 - 문제와 솔루션을 연결하는 내러티브가 돈의 투입 방식과 규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 번째, 컨설팅 혹은 교육의 형태를 통해 사회 기술로 생산한 새로운 지식과 윤리를 먼저 내재화한 기존 집단의 구성원들이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리더로 활동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율화와 책임화가 재생산되고 확산할 수 있다.

4. 대안적 커뮤니티 개발은 가능한가?

Joseph(2002)은 낭만적 커뮤니티 담론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는 왜 끊임없이 호출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다. Joseph(2002)은 이 질문에 대해 2가지 답변을 내놓고 있다.

첫째, Joseph(2002)은 커뮤니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보다 커뮤니티 만들기라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커뮤니티 담론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Joseph(2002)은 우파든 좌파든 커뮤니티를 불러들여 호소하는 이유를 그들이 공히 동일성 기반 사회운동identity-based social movement에 기반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동일성 기반 사회운동이란 계급, 정당, 지역, 여성, 민족 등 자신의 지지기반을 동일성을 지닌 사회집단에 두고자 하는 운동을 말한다. 이들이 추구하는 집합적 실천의 토대는 동질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주체들이다. 이러한 주체는 감정적 관계의 공간인 커뮤니티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

Joseph(2002: 31)은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을 통해 주체가 구성되는 데 작동하는 권력을 설명하고 있다. 수행performance이란 청중audience이 보았거나 믿고 있는 양식화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들은 커뮤니티 안에서 양식화된 실천practice을 인용하고, 반복함으로써 특정 규범을 반복하는 것이고 주체로 작동하는 것이다(Joseph, 2002: 31).

예를 들면, 개인은 마을의 자산을 목록화하는 실천을 통해, 오래 거주한 주민들과의 생애사 인터뷰 실천을 통해, 마을의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실천을 통해 자신을 마을 활동가로 직조해내기도 하고, 특정한 디자인과 색상의 옷을 입는 실천, 특정 카페에서 모임을 갖거나 특정한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하는 실천을 통해 특정한 사회적 위치를 드러내는 주체가 된다.

둘째, Joseph(2002: 2)은 커뮤니티와 자본주의는 Derrida(1967: 145)의 용법을 따라 대체보충적supplementary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체보충적 관계란 본체와 중심, 기원적인 것은 사실 보충물이나 부가물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자본주의와 커뮤니티는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 못하고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외관으로는 서로 독립적이고 별개의 것으로 나타나고, 서로 넘어서거나 치환되는 관계로도 나타난다(Joseph, 2002: 2).

자본주의가 커뮤니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자본은 순환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 커뮤니티 내 개인들의 수행적 실천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생산된 상품은 자신의 유용성을 커뮤니티 내에서 인정받아야 하고,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노동력도 공급받아야 한다. 상품의 유용성은 사회 관계를 반영하고 사회적·역사적 맥락에 의존한다.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무엇을 어디에서 먹을 것인지는 개인이 속한 집단과 유행의 영향을 받는다. 노동력의 출산과 보육,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해 학교, 종교, 가족 등 커뮤니티 형성의 장소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커뮤니티는 자본의 순환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낭만적 커뮤니티 담론에서 커뮤니티는 자본주의와 대리보충적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전통 사회 해체라는 현상으로 인해 커뮤니티는 자본, 국가와 대립하는 별개의 것으로 표상된다. 낭만적 커뮤니티 담론은 커뮤니티를 과거의 이상화된 상태로 이미지화함으로써 현재와 분리한다.

Joseph(2002: 15)은 낭만적 커뮤니티 담론은 자본주의를 선택적으로 비판하고 수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자본주의가 커뮤니티를 파괴했다고 비판하고 화폐를 악의 근원으로 간주하지만, 현실의 화폐는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다국적 기업, 다른 로컬의 기업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자신의 커뮤니티에 기반한 기업은 옹호한다. 이러한 선택적 수용과 비판을 통해 현존하는 위계는 정당화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자본주의 문제 해결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낭만적 커뮤니티 담론에 기댄 사회운동 세력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한다면, 지자체 혹은 국가 수준에서, 정책 파트너로 역할 하던 직접 정책의 입안자가 되던, 방향과 배치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름의 커뮤니티를 통한 통치를 실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대안적 커뮤니티 개발의 모습일까? 이런 통치는 정치적 입장에서 다른 방향의 커뮤니티 개발이겠지만, 이 과정에서 낭만적 커뮤니티 담론에 의존하는 것은 동일하다. 대안적 커뮤니티 개발의 상을 그리기 위해서 커뮤니티 개념에 대해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Simmel(2013: 588-590)은 화폐경제의 발달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이것은 개인에게 이중의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고 있다. 즉, 화폐경제의 발달은 개인을 다른 사람들의 서비스에 점점 더 의존시키면서, 그 직접적 의존관계는 해체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이 그가 속한 집단에 대한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돈은 전체 집단에 대한 개인의 관계를 훨씬 더 독립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Simmel(2013: 590)은 중세의 길드와 근대의 주식회사를 비교하면서 길드는 경제적 이해관계 이외의 친교, 종교, 정치 및 다른 많은 측면을 아우르는 삶의 커뮤니티였던 반면, 주식회사는 오직 배당에 대한 관심으로만 연합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로 이 점, 특정한 목적만 향유하고 그 밖의 다른 점에서 인격에 관한 속박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가 증진된 것이고, 이것이 중세적 결합 형식과 근대적 결합 형식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화폐경제의 발달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화폐 형식으로 표현되면서 이전의 '전부 아니면 전부'인 결합 형식에 가분성이 허용되었고, 개인과 결사체들은 각각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포기하지 않은 채 연합해서 보다 높은 단위를 결성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Simmel, 2013; 591). Simmel(2013; 596)은 이것을 하나의 포괄적 원리로써 정리하고 있는데, 사회집단의 확대는 각 구성원의 개별화, 독립화와 병행한다는 것이다.

Simmel의 견해대로 개인은 더 광범위하게 타인에게 의존하지만, 직접적·인격적 결합은 약해진다면 커뮤니티는 중세의 산물이고 현대에는 더는 존재할 수 없는 사회집단의 형태일까?

Brint(2001; 2)는 커뮤니티를 바라보는 2가지 시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는 Tönnies에게서 기원하는 Gemeinschaft와 Gesellschaft의 구분으로서 커뮤니티를 하나의 물리적 실체로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Durkheim에게서 기원하는 것으로 커뮤니티를 사회집단이나 물리적 실체로 보지 않고 인간 상호작용 속성들의 집합으로 보는 것이다.

Durkheim(2012) 역시 Simmel과 유사하게 중세에서 근대 사회로 전환되면서 사회 연대의 속성이 변화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즉, 동질성에 기반한 기계적 연대에서 개별성에 기초한 유기적 연대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기계적 연대란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이러한 동질성을 기반으로 결속하는 것을 말하고, 유기적 연대란 분업이 본격화되어 구성원들은 전문화된 일을 수행하고 이러한 차이가 사회 연대의 토대가 되는 것을 말한다.

Brint(2001; 2)는 Durkheim의 연구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여 상호작용을 구조 변수와 문화 변수로 구분하였다. 구조 변수에 속하는 것은 연결망의 밀도, 애착과 관여, 빈도 ritual occasions, 규모 small group size이고, 문화 변수는 삶의 방식, 역사 등에서의 유사성을 인식하는 정도와 도덕, 사상 등에 대한 공통의 믿음 등이다. Tönnies는 사회 발전에 따라 Gemeinschaft가 약화되고 Gesellschaft가 확대되는 양상으로 파악했다면, Durkheim 등은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변수들을 구별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Brint, 2001; 2).

Wellman(1979; 1202)은 커뮤니티에 대한 탐구는 2가지 선입견 때문에 중간에 길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는 연대 의식이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이고, 다른 하나는 장소성에 대한 것으로 특정 장소는 본질적인 정체성을 가질 것이라는 선입견이다. 이들 선입견 때문에 개인 간 네트워크의 속성과 기능을 연구하는 것이 아닌 장소 혹은 커뮤니티에 고유한 연대를 찾는 문제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Rose(1999; 172)는 Etzioni(1997)를 따라 커뮤니티를 2가지 속성에 따라 정의했다. 개인들이 집단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망이면서 공유하는 가치와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Rose를 따라 커뮤니티를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다. 앞

에서 Massey(1991)가 장소를 지리적 공간이 아닌 사회 관계들의 특정한 위치들이 만나고 이어지는 선이라 하였는데, 커뮤니티는 그 선을 따라 존재하는 미시 네트워크이면서, 권력 관계의 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커뮤니티를 미시 네트워크로 정의한다면 사회집단을 커뮤니티와 사회의 이분법으로 볼 필요가 없고, 커뮤니티와 결사체의 관계 역시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필요가 없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커뮤니티는 네트워크의 특정 속성이라면, 결사체나 기업 등은 정관, 목적, 활동 내용 등 조직 형식에 의해 구분하는 사회조직이고, 분석의 수준과 시각에 따라 결사체나 기업을 구분되는 사회조직으로 보면서 동시에 커뮤니티로서 파악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Foucault의 권력 개념에서 힘은 기율적이기도 하지만 본성상 생산적이기도 하다. 기존의 윤리와 위법성의 틀을 깨고 새로운 윤리와 위법성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커뮤니티를 통한 통치는 국가와 자본의 통치 기술로만 볼 필요는 없다. 많은 사회운동 세력 역시 호혜와 평등의 상징으로 커뮤니티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자신들만의 행위 규범, 사고방식, 단어의 새로운 의미와 용법을 창출함으로써 자신들 특유의 커뮤니티를 생산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Nancy(1991)가 제시한 ‘작동하지 않는 커뮤니티in-operative community’라는 개념은 대안적 커뮤니티 개발을 상상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동일성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는 구성원들의 ‘함께 되기being together’를 강요하는 것이라면, Nancy(1991)는 함께 되기 메커니즘의 작동을 중지하고 서로의 차이를 응시하는 ‘함께 있음’의 실천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주변부와 중심부를 나누지 않고, 타자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김상철 & 김진아, 2015: 231).

권력, 통치가 도처에 편재하듯 기성 윤리의 틀을 깨는 새로운 권력은 어떤 특별한 기획에 의해서 출현하는 것이 아닌 힘의 본성에 의해서 언제 어느 곳에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새로운 힘, 윤리들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을 수 없다. 하나의 커뮤니티에서 이 출현은 드물고 소수일 수 있지만, 글로벌 규모의 거시 네트워크에서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이 동일성을 갖지 않는 새로운 주체화 양식을 기술하기는 쉽지 않다.

Unger(2012: 127)는 주체를 형성시키는 조건들에 대한 주체의 초월은 인간 경험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나 다양성의 완성을 보증하는 제도나 사회 구조는 없으며, 실천이 사유를 구체화하는 범위를 좁혀나가는 실용주의적 실천을 강조한다.

이런 맥락에서 대안적 커뮤니티 개발의 잠정적 모습은 로컬에 국한하여 해당 지역 경제

를 발전시키기 위한 행정적 계획이 아닌 글로벌 규모에서 어떠한 동일성도 갖지 않는 새로운 주체화 양식을 찾는 실험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협동조합 제7원칙에 주는 함의

Tönnies(2017; 34)는 이익사회의 예로 상사회사를 들며,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모였기에 구성원 간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여 ‘상사공동사회’ 혹은 ‘주식공동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말하였다. 반면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재산 결사체라고 보면서 상사회사와는 다른 계약 형태에서 비롯된 것이고, 운영에 있어서 조합원의 공동사회적 관계에 입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Tönnies, 2017; 291). 당시 독일에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법에 의해 구성되었지만, Tönnies(2017; 292)는 협동조합을 통해 이익사회적 생활 조건에 적합한 어떤 형태 속에서 새로운 삶의 공동사회경제의 원칙을 알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공동사회의 속성이 이익사회 속에서 발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Tönnies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법학자 Gierke는 개인의 결합으로서 단체이론을 정립한 학자이다. 그는 자연인 이외 권리주체로서의 속성을 가지는 모든 조직체를 통칭하여 결사체Vereinigung 혹은 단체Verband라 부르고, 단체의 하위 개념을 인적결사체와 재산집합체로 구분하였다. 인적결사체에는 인적 결합의 강도에 따라 구성원들의 개성은 얽어지고 단일한 조직체의 성격이 강한 사단체Koperschaft, 구성원의 개성이 남아있고 느슨한 인적 결합인 조합Gesamthandgesellschaft, 공동목적 없이 지분만 공유하는 권리공동체schlichte Rechtsgemeinschaft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사단체의 하위 개념으로 영리목적 없는 사단, 영리추구가 주목적인 물적회사, 그리고 구성원들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Genossenschaft으로 구분하였다(송호영, 2015; 25). 이는 당시 협동조합의 사회적 위상을 반영하는 것임과 동시에 협동조합은 회사와 구별되는 목적과 내부 결합 관계를 맺고 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협동조합은 초기부터 교육과 문화 활동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커뮤니티에 관여했다. 협동조합 제7원칙 커뮤니티 관여는 1995년 ICA 총회에서 명문화되었지만, 이미 1966년 제6원칙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제6원칙은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커뮤니티를 위해 안팎에서 서로 협동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ICA, 2017; 193). 이 중 커뮤니티 부분이 1995년,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승인한 정책을 바탕으로 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한다는 제7원칙으로 서술되었다. ICA가 2015년 발간한 <ICA 협동조

합 원칙 안내서)(이하 안내서)는 이를 해설하면서 커뮤니티의 정의에 대해 ‘협동조합이 속한 지역 공동체local community’라고 말하고 있다(ICA, 2017; 198).

Bhattacharyya(2004; 6)는 커뮤니티 개발의 분야에서 커뮤니티 개발은 사실 지역사회 개발locality development로 이해됐다고 말한다. 1968년 Rothman이 Three models of community organization을 발간하면서 지역사회 문제에 개입하는 3가지 모델로 지역사회 개발locality development, 사회 계획social planning, 사회 행동social action 등 3가지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 교육자와 실천가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굳어진 결과이다.

안내서에서 제시하는 커뮤니티 관여의 내용 역시 지역사회 개발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로 사회의 고용을 증진하는 경제적 기여, 교육과 기부, 문화 활동 등을 통한 사회·문화적 기여, 민주적 리더십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개발의 효과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협동조합이 커뮤니티 발전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지, 커뮤니티를 통한 통치가 협동조합을 통한 통치로 전환되는 수단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Windel(2021)은 대영제국 후반 커뮤니티 주도 농촌 현대화community-driven rural modernization의 중심에 협동조합이 중심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영국은 식민지 통치 전략의 일환으로 협동조합을 이용했는데, 식민지 농촌 마을과 협동조합 조직 특성 간에 유사성이 있다고 보았고,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운영하지만, 핵심적 의사결정에는 배제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간접 통치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통치를 위한 사회 기술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의 커뮤니티 관여는 동일성에 기반하지 않은 주체화 양식 생산에 협동조합이 기여하고 있느냐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거시적 수준에서 민주적 기획과 다양성 증진이라는 시각과 미시적 커뮤니티 수준의 실천을 결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안내서도 이러한 시각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배타성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세계 시민으로서 협동조합인의 관점을 가지고 커뮤니티에 관여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ICA, 2017; 202). 이러한 관점에서 커뮤니티 관여를 이해할 때 협동조합이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바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현주, 2022, 공동체의 감수성, 고양; 북인더갭.
- 김효영, 2019, 들뢰즈의 미시적 무의식 개념에 대하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상철 & 김진아, 2015,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서 나타난 공동체의 특징, 현대영화연구 11(1), 227~252.
- 박주형, 2013, 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사회, 23(1), 4-43.
- 성공회대학교, 2011, 1970년대 새마을운동 계통도,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 새마을운동연구팀.
- 송호영, 2015, 법인론 제2판, 신론사.
- 유진현, 2012, 가브리엘 타르드의 <모방의 법칙들>에 나타난 심리사회학의 특성, 불어불문학연구, 91집, 197-234.
- 이승철, 2020, 마을 기업가처럼 보기: 도시개발의 공동체적 전환과 공동체의 자본화, 한국문화인류학 53(1), 99-148.
- 정우열 & 남홍범, 2013, 한국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과 방향, 한국행정사학지, 32집, 271-301.
- 최선희, 2019, 커뮤니티의 개념 고찰, 일립논총, 21집, 33-57.
- 한도현, 2010,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서 마을 지도자들의 경험세계: 남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88집, 267-305.
- Bhattachayya, Jnanabrata, 2004, Theorizing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of the Community Development Society, 34(2), 5-34.
- Brint, Steven, 2001, Gemeinschaft Revisited: A Critique and Reconstruction of the Community Concept, Sociological Theory 19(1), 1-23.
- Deleuze, Gilles, 1968, Différence et Répétition, 김상환 옮김, 2020, 차이와 반복, 서울; 민음사.
- Deleuze, Gilles, 1986. Foucault, 권영숙.조형근 옮김. 1995. 들뢰즈의 푸코, 서울; (주)새길.
- Dirkheim, E., 1893, De La Division du Travail Social, 민문홍 옮김, 2012, 사회분업론, 아카넷.
- Etzioni, A. 1997. The New Golden Rule: Community and Morality in a Democratic Societ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ucault, Michel, 1975, Surveiller et punir: Naissance de la prison. 오생근 옮김, 1994, 감시와 처벌, 파주; (주)나남출판.
- Gibson-Graham, J.K. 2002. "Beyond global vs local: Economic politics outside the binary frame", in A. Herod and M. Wright (eds). Geographies of Power: Placing Scale, Blackwell Publishers, Oxford: 25-60.
- Hillery jr. George A. 1955. Definition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2), 111-123.
- ICA, 2015, Guidance Note to the Cooperative Principles, 한국협동조합협의회 옮김, 2017,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
- Joseph, Miranda, 2002. Against the Romance of Communi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Li, Tania M., 2010, Rendering Society Technical: Government Through Community and the Ethnographic Turn at the World Bank in Indonesia. TSpace. Available at <http://hdl.handle.net/XXXX/XXXXX>. Replace the 'XXXX/XXXXX' with the item handle from the URL, i.e. the last 9 digits.
- Massey, Doreen, 1991.6, A Global Sense Of Place, MARXISM TODAY.
- Nancy, J-L. 1991, The In-Operative Communi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immel, Georg, 1900, Philosophie des Geldes, 김덕영 옮김, 2013, 돈의 철학, 서울; 도서출판 길.
- Turner, Jonathan H., 2013, Contemporary Sociological of Theory, 김윤태 외 옮김, 2019, 현대 사회학 이론, 파주; (주)나남
- Tönnies, Ferdinand, 1887, Gemeinschaft und Gesellschaft, 박노완, 황기우 옮김, 2017,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 순수사회학의 기본개념, 서울; 라움.
- Unger, Roberto Mangabera, 2006, The Self Awakened, 이재승 옮김, 2012, 주체의 각성, 서울; 도서출판 엘피.
- Wellman, Barry, 1979, The Community Question: The Intimate Networks of East Yorker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5), 1201-1231.
- Windel, Aaron, 2021, Cooperative Rule: Community Development in Britain's Late Empi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